

전 국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15만원~45만원… 오는 9월 12일까지 신청

비수도권 3만원 · 인구감소지역 5만원 ‘더’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 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지원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으로 결정했다.

특히 이와 별개로 서울 · 경기 ·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 · 어촌 인구 감소지역(84개 시 · 군) 주민에는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를 통해 소비쿠폰이 우리 경

제의 회복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했다.

신청은 이달 21일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24시간 신청 가능) 및 오프라인(오후 6시까지, 은행 영업점은 4시까지)으로 신청하는데 신용 ·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온 · 오프라인 모두 신청할 수 있는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요일제는 월요일의 경우 출생

년도 끝자리 1 · 6번, 화요일은 2 · 7번, 수요일 3 · 8번, 목요일 4 · 9번, 금요일 5 · 0번이며 주말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접근성이 낮은 국민의 편의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해 신청을 접수하고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해 사각지대 관리에 소홀함이 없게 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1차 지급과 별도로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납입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다만 신속한 지급을 목표로 1차 지급과 달리, 선별 과정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2차 지급은 오는 9월 22일 시작해 10월 31일 종료할 예정이다. 이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외의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적용한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오는 9월 중 발표한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위한 이의신청 및 처리 절차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의 신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소비쿠폰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7월부터 어린이집 0~2세 보육료 지원금 5% 인상

아동 급 · 간식비, 보육교사 인건비 등 지원 확대

교육부는 이달부터 어린이집 0~2세와 장애아 보육료의 정부 지원 단가를 종전보다 5%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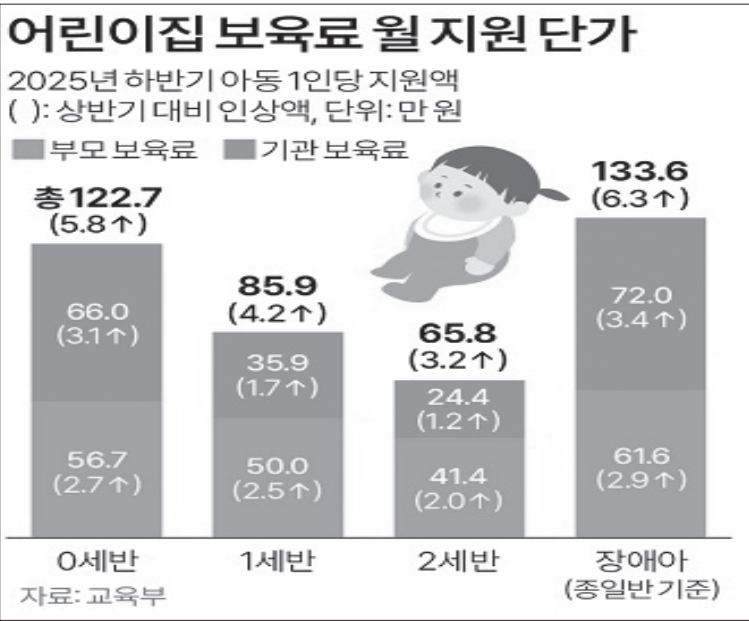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0~2세와 장애아 총 53만 5000명에 대한 정부 지원 보육료 인상 금액이 반영됐으며, 교육부는 확정된 예산을 연내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전 계층 0~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해 왔으며,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보호자에게 국민행복카드(바우처)로 매월 지원하

고 있다. 이번 추경으로 0~2세 영유아와 장애아에 대한 ‘부모보육료’가 0세반 54만원에서 56만 7000원, 1세반 47만 5000원에서 50만원, 2세반 39만 4000원에서 41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58만 7000원에서 61만 60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매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조금인 ‘기관보육료(아동 1인당)’도 0세반 62만 9000원에서 66만원, 1세반 34만 2000원에서 35만 9000원, 2세반 23만 2000원에서 24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68만 6000원에서 72만원으로 오른다.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뿐 아니라



출처: 정책브리핑 · 연합뉴스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제공하는 급 · 간식, 냉 · 난방 등에 대

한 지원을 확대해 보육의 질이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장기요양급여비용 한해 16조 넘었다

신청자 147만 8000명… 1년 새 3.4%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달 30일 ‘2024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작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이 1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다.

통계에 따르면 작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수는 147만 8000명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이 중 116만 5000명(인정률 89.5%)이 인정받았다.

인정자 수는 4등급(46.0%)이 가장 많고 3등급(26.7%), 5등급(11.6%), 2등급(8.5%), 1등급(4.8%), 인지지원등급(2.4%) 순이었다.

작년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더한 장기요양 급여비용은 전년 대비 11.6% 증가한 16조 1762억원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비용은 최근 몇 년 사이 매해 1조 넘게 늘고 있으며, 작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16조 1762억원 중 공단부담금은 전년보다 11.9% 상승한 14조 7675억원

으로 나타났다.

또한,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용은 150만원이고 이 중 공단부담금은 137만원이었고 유형별로 보면 재가급여가 9조 2412억원(62.6%), 시설급여가 5조 5041억원(37.3%)을 차지했다.

작년 말 기준 장기요양기관은 전년 대비 2.4% 늘어난 2만 9058개소로 집계되며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인력은 70만 4533명으로, 전년보다 4.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보호사… ‘표준임금제 도입’ 촉구

17년 일해도 최저임금… 돌봄서비스노조 인상 요구

요양보호사들이 1일 ‘요양보호사의 날’ 17주년을 맞아 정부에 표준임금제 도입과 정규직 전환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양보호사의 표준임금제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기본급으로 최저임금의 120%를 지급한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사실상 최저임금만 지급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도 2022년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표준임금제 도입을 권

고한 바 있다.

이들은 정부에 표준임금제 도입, 정규직 전환 및 인력 기준 강화, 과중한 업무 완화 대책 마련, 공공요양시설 확대 및 민간 의존형 돌봄정책의 전면 전환, 생활임금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날 현장에 선 노조 조합원들은 “17년을 일해도 임금은 최저임금이다”, “요양보호사 1명

이 16명 어르신을 감당해야 한다”며 저임금과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를 토로했다.

특히 일부 구립요양원에서는 정원 감축과 비정규직 확대가 이어지면서 돌봄의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됐다.

노조는 “노인장기요양제도를

도입한 지 17년이 지났지만 요양보호사의 현실은 여전히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상황”이라며 “국가공인 자격증을 갖추고 보수교육까지 이수한 요양보호사들이 인건비 가이드라인도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전 정부는 민간 중심의 돌봄정책을 고수하며 공공의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공공요양시설 확대와 민간 의존형 돌봄정책의 전면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돌봄노동 존중 없는 국가에 내일은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기본사회’, ‘양질의 돌봄 일자리 확대’를 공약한 만큼,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국 헬스장 · 수영장 ‘최대 300만원’ 소득공제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대상… 체육 분야 공제 확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7월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 · 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됐지만, 이번에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 · 수영장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절반만 시설이용료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설 내에서 운동용품과 음료를 구입하는 경우는 시설이용료에서 제외한다.

문체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은 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

를 지난 1월부터 모집해 왔고 이달 말까지 전국 헬스장과 수영장 1000여 곳이 등록했다.

앞으로도 공공 매체와 온라인 매체 등 업계와 국민을 대상으로 지속해서 홍보해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에서 현재 적용 시설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신규 시설 등록도 할 수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의 참여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과 고객센터(☎1688-07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소득공제 제도로 체육활동이 더욱 활성화돼 건강 증진과 함께 스포츠산업 현장에도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

보호종료확인서, ‘정부24’ 발급 가능

자립준비청년, 직접 행정복지센터 방문할 필요 없어져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의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0년 10월 1일 이후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보호종료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최근 정부는 보호 종료 후 이

러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수당, 자립정착금을 지급하고 전국 자립지원전담 기관에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때 자립준비청년이 경제적으로 필요한 여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보호종료확인서가 필요하다.

그동안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생활하던 아동복지시

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연락 · 방문해야 했다.

이로 인해 학업, 취업 등의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 자립준비청년이 보호종료확인서를 발급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후 거주지 인근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지만 직접 복지센터를 방문해야만 한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이날부터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보호종료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전문봉사단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세요!

지역사회봉사단!

지역사회봉사단이란?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 자원봉사단

위촉기준

vms 가입되어 있으며, 2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한 단체

봉사단 혜택

활동재료 지원
자원봉사활동 시간(vms) 인정·관리
봉사활동 연계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복지정보과 박민정 코디네이터

전화) 043-234-0840

충북모금회, 저소득가구 에너지 복지 강화

냉·난방단열 원스탑 지원사업 ‘충북협의회’ 선정
2억 5000만원… 복지사각지대 사고예방 등 기여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민성, 이하 충북모금회)는 1일, 저소득 가구의 냉·난방단열 개선을 위한 지원금 2억 5000만 원을 충북사회복지협의회(회장 유응모, 이하 충북협의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업 선정 기관인 충북협의회가 지원금을 교부받아 수행하고,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진행된다.

수행기관은 ‘저소득 가구 냉·난방단열 원스탑 지원사업’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노후 냉·난방 기구 및 관련 부대시설 교체를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일에는 사업 전달식 및 수행기관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각 수행기관의 담당자들이 참석해 사업의 추진 방향과 절차를 공유했다.

이민성 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구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복지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응모 회장은 “충북모금회의



충북모금회 이민성(오른쪽) 회장이 충북협의회 유응모 회장에게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지원에 감사드리며, 이번 사업이 단순한 냉·난방 지원을 넘어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



충북보건과학대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체계 구축’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북보건과학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앞장’

지역내 6개 기관과 업무협약
실질적 돌봄 인력 기반 마련

충북보건과학대학교(총장 박용석)는 7일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체계 구축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돌봄 인력 수급난 해소와 사회통합형 전문인력 양성에 본격 나섰다.

충북보건과학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동부지사(지사장 박애순),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원장 김일한),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유응모),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원장 이장희),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충북지

부(지부장 박종립) 등 총 6개 기관과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거버넌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법무부·보건복지부·충청북도가 공동 추진하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에 외국인과 다문화 인력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돌봄인력 양성 기반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사업의 선정 및 운영 협력, 외국인 요양보호사 실습·취업 연계 체계 구축, 노인돌봄 정책 제안 및 돌봄 서비스 협의체 구성 등 폭넓은 분

야에서 협력하게 된다.

한편, 충청대학교(총장 송승호)도 지난 9일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충북지부(회장 박종립),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충북지부(회장 조한태),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와 외국인 유학생의 실습 및 취업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복지 인재 양성에 동참하고 있다.

충청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장기요양 및 재가복지 분야 실습처 제공, 외국인 유학생 대상 언어·문화 적응 교육, 전문 교육 및 워크숍 운영, 국내외 취업·인턴십 연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충북하나센터, 북한이탈주민과 화합의 장 마련

자립·사회통합 지원 최선

남북하나재단 직영 충북하나센터(센터장 송은하)는 19일 ‘제2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를 충주시 파라다이스 웨딩홀에서 개최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 14일)을 기념해 열린 이날 행사는 ‘다름이 하나되어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남북한 주민 간 통합문화 형성을 위해 기획됐다.

이날 김영환 충북지사, 지성호 함경북도지사, 조길형 충주시장, 이종갑·이정범·조성태 충북도 의원을 비롯해 200여 명의 남북한 주민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우륵가야금 공연, 축하 및 표창장 수여, 화합의 시간(노래자랑 경품대회) 등의 순서로 진



제2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에 참여한 내외빈들이 한반도기를 흔들며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행됐다.

김영환 지사는 축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은 낮은 환경 속에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며 사회적

편견과 단절, 정서적 소외라는 수많은 장벽에 부딪힌다”며 “충북도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위해 지원을 집중하고, 교육·고용·문화 등 맞는 분야에 참여와 기회의 폭을 실질적으로 확대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은하 센터장은 “80년간 분단된 조국의 아픔과 고단함을 3만 40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 다 짊어지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며 “열심히 생활하시다 보면 통일이 돼 고향 가시는 날이 꼭 오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남북하나재단은 지난 2010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돕기 위해 설립됐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초기 정착부터 생활보호, 취업·교육지원, 통일 미래리더 양성, 국민인식개선 캠페인까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충북광역푸드뱅크 물류센터에 미래나노텍 임·직원들이 방문해 직접 나눔꾸러미를 포장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미래나노텍, 어려움 이웃에 ‘든든한 한끼’를

미래나노텍(대표이사 김철영)은 지난달 26일 충북사회복지협의회(회장 유응모)에서 운영하는 충북광역푸드뱅크와 함께 ‘든든한 미래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작했다.

‘든든한 미래 지원사업’은 미래나노텍이 전하는 마음, 든든한 한끼, 꿈꾸는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쌀, 라면, 김, 고추장, 된장 등

기본 식료품 13가지 품목을 담은 5만원 상당의 지원꾸러미를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는 나눔사업이다.

충북광역푸드뱅크 물류센터에

서 미래나노텍 임·직원들이 방문하여 직접 나눔꾸러미를 포장하고 충북도내 푸드뱅크 이용자가 구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분기마다 진행할 계획으로, 연간 2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고자 한다. 이용자의 수요와 만족도를 충족시켜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철영 대표이사는 “든든한 한끼가 주는 힘을 믿는다”며 “진심 어린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유응모 회장은 “단순한 물품 후원을 넘어,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연대의 시작으로,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옥천군장애인복지관, “삼계탕 드시고 힘내세요”

옥천군장애인복지관(관장 황명구)은 16일 지역 내 장애인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초복맞이 삼계탕 나눔 행사를 했다.

이날 행사는 대한적십자사봉사단 옥천군협의회(회장 김성근)에서 닭 250마리를 후원해 이루어졌으며 적십자 회원 20명이 직접 대상자들에게 삼계탕을 배식해 그 의미를 더했다.

황명구 관장은 “대한적십자사 봉사단 옥천군협의회의 따뜻한 후원 덕분에 지역 장애인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선사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과 건강을 위한 다양한 나눔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배식봉사에 함께한 황규철 옥천군수는 “장애인가족 모두

가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하며 행복한 장애인들의 삶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옥천군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내 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 보수교육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장화정)는 15일 청주시 가정위탁부모 75명을 대상으로 충북미래여성프라자에서 위탁부모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가정위탁보호사업 및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와 연평별 위탁아동과의 의사소통 방법, 위탁아동 자립교

육을 주제로 진행됐다.

교육을 통해 위탁부모로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인식하고 아동 양육능력 및 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시간으로 건강한 양육 환경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장화정 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위탁부모로서 아동을 건강하

게 양육하기 위한 올바른 자질과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본 센터 또한 위탁부모의 양육 파트너로서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학대나 방임, 빈곤 등의 사정으로 원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아동에게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 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하는 아동복지서비스다.

사회복지 유관기관 정보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유복지플랫폼

‘충북복지넷’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시행 1년, 과제와 대안을 말하다

2025년 청주시사회복지연구소 좌담회 개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의 현실

지난 2023년 7월, 보전복지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전국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했다.

지적·자폐성 장애인 중 도전행동(자해·타해 등)이 심하고, 일상생활이나 의사소통에 심각한 제약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그간 활동지원제도, 장애인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여러 돌봄체계가 존재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도전적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이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안정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해나 타해, 돌발행동 등으로 상시 관리가 필요하지만, 공공 돌봄체계는 물론 민간 돌봄조차 ‘감당’이 안 된다며 진입조차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결국 집에서 부모가 24시간 전담하거나, 입원이 아닌 ‘격리’에 가까운 조치가 반복되는 것이 현실이었다.

기존의 돌봄서비스만으로는 충분히 지원하기 어려웠던 이들을 위해 전문 인력과 지역 인프라를 연계한 개인별 맞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가족의 부담을 덜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개별지원계획(ISP)’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통합돌봄 모델을 개발, 전담 제공기관을 지정하고, 1:1 지원, 주거지원, 행동지원, 가족지원 등을 묶은 복합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시작했다.

국립재활원이 제도 모델을 설계하고, 각 지역의 발달장



청주시사회복지연구소는 지난 6월 26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의 현실에 대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애인지원센터가 중간 조정자로 나서며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한 새로운 돌봄의 문이 열렸다.

하지만 시행 1년, 현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서비스를 받은 가족들 중에는 “태어나 처음으로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도 있지만, 많은 제공기관들은 여전히 불명확한 기준, 준비되지 않은 인력, 예산 부족, 제도 간 충돌을 호소한다.

‘도전적 행동’이라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대상자 선별부터 혼란이 발생하고, 인력은 부족함에 위험부담은 높고, 처우는 낮아 종사자의 이직률은 심각할 수준이다.

단기 서비스가 끝난 뒤 이어질 중장기 돌봄 대안도 마땅치 않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은 제공기관 자체가 없거나 인력이 부족해 아예 서비스를 시도조차 못하는 사례도 있다.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 없이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제도의 성패는 현장과 얼마나 밀접하게 맞닿느냐에 달려 있다.

전문 인력 양성과 실습 중심 교육, 지역 기반 행동지원 컨

설팅 체계, 가족을 함께 돌보는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최중증도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시행 1년, 이 제도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분명한 것은 한 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걸음을 제대로 내딛게 할 수 있는 힘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를 움직이는 노력에서 비롯된다.

이에 충북 지역의 복지 전문가들과 실천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시행 1년의 현황과 과제를 진단했다.



이순희 좌장



김현숙 연구위원



안중태 연구위원



유응모 연구위원



김정인 초청위원



최수진 초청위원

이번 좌담회는 청주시사회복지연구소(소장 이순희) 주관으로 지난 6월 26일 오후 2시 30분, 청주시 유전동에 위치한 ‘구루물아이지 3층’에서 개최됐다.

참여 연구위원은 청주경노인복지관 김현숙 관장, 충청북도공무드리체육관 안중태 관장,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유응모 회장이 참여하였고, 초청패널로 충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 김정인 센터장, 이음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최수진 센터장이 함께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시행 1년을 맞아 마련된 이번 좌담회는 제도의 초기 성과와 한계를 되짚고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제도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공감하면서도 현장 적용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과 제도 간의 괴리,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 마련의 시급함을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현장의 목소리로 살펴본 제도 개선 방향

‘제도는 시작됐지만, 준비는 미흡’

이날 좌담회의 표문을 연 이순희 청주시사회복지연구소장은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도 ‘최중증’이라는 표현이 여전히 사용된다 건, 그만큼 돌봄의 강도와 어려움이 높다는 의미”라며 “제도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시행 초기부터 크고 작은 문제들이 나타났기에, 오늘 좌담회가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문성 갖춘 인력유입 절실’

안중태 연구위원은 “발달장애인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타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애인의 70% 이상이 발달장애인”이라며 “정부의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은 이를 반영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개별지원, 개인에 산재, 활동지원 고도화’를 핵심 방향으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장애 당사자의 자립기반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흐름은 긍정적이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도와 실제 적용 간 괴리와 시행착오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전적 행동 중심의 서비스 기준, 현실적 어려움 커’

최수진 초청위원은 “서비스가 급하게 출발하면서 인력 확보나 기준 정립이 미흡했고, 도전적 행동에

초점을 맞춘 기준 때문에 정작 실제로 필요한 이용자가 배제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 간 운영 격차, 예산 구조의 복잡성, 종사자 이직률, 전문성 부족 등 이용인의 도전적 행동이 심화되거나 방임될 위험이 있다”며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와 처우 개선을 강조했다.

‘교육의 구조적 개선 강조, 지방비 기반 특화사업 구축’

김정인 초청위원도 “80시간의 온라인·집합 교육이 구성은 잘 되어 있지만, 대면 실습이 부족해 현장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사례 기반 교육, 기관 내 슈퍼비전, 실천 역량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전적 행동 대응 전략이 종사자 소진 및 이직률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며 “행동지원 컨설팅 사업이 모든 지역에서 지역센터 고유 사업으로 추진되기 위해 충북도는 타 지자체처럼 지방비 기반 특화사업 추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제 행동이 아니라 ‘의의제기 행동’ 인식 전환 절실’

김현숙 연구위원은 “도전적 행동을 문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그것은 당사자의 의사표현일 수 있고, 환경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주도적인 삶과 자립 가능성을 위한 구조가 필요하다”며, “예비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커리큘럼과 훈련 체계를 정비할 것”을 강조했다.

‘가정 돌봄의 한계와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 시급’

유응모 연구위원은 “성인이 된 발달장애인을 가정에서 돌보는 일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사례가 많다”며, “실제로 상담을 요청해 온 가족 사례가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또한 “서비스 제공기관이 도심에 편중돼 있고 농촌 지역에는 전무한 수준”이라며, “소득에 따른 자부담 차이 외에도 서비스 선택권이 거의 없는 상황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이제는 실천할 때

좌담회 후반부에는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제안들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현장 종사자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현숙 연구위원

입사 초기 일정기간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대체인력 지원사업과의 연계 강화, 종사자 전문성 인정체계 구축 등을 제안하며, “이용자 중심의 관점 전환과 ‘도전적 행동’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수진 초청위원

‘최중증’ 대상자 선정 기준의 명확화, 행동지원 컨설팅 확대, 전이 이후 서비스 연계 마련, 종사자 사전 교육의 제도화 등을 과제로 꼽으며 “돌봄의 회귀가 아니라, 실질적인 전이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인 초청위원

실습 중심의 현장 맞춤형 교육체계 도입, 내부 슈퍼비전의 정례화, 행동지원 컨설팅 예산화 및 상근 전문가 배치, 대학 교과목 개편 등 현장 중심의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실현과 지역 간 급여 격차 해소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응모 연구위원

통합돌봄을 독립된 전문분야로 인정하는 정책 체계 마련, 지역 개념의 사회적 재정립, 도시와 농촌 간 접근성 격차 해소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당사자 중심의 실천적 접근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중태 연구위원

“도전적 행동 대응도 통제 중심에서 환경 중심의 접근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입사 초기 집중 교육, 상시 슈퍼비전 인력 배치, 질 중심의 교육 체계 구축 외에도 돌봄 종사자의 장기 근속을 위한 호봉 및 전문수당 현실화, 경력 인정 체계 정비, 처우 격차 해소가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순희 소장

“오늘 좌담회는 단순한 문제 제기 그치지 않고, 제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현장 중심의 제안이 모인 뜻깊은 자리였다”며 “도전적 행동’이 통제의 대상이 아닌 당사자의 ‘의의제기 행동’일 수 있다는 관점의 전환, 그리고 돌봄이 곧 삶이라는 인식 속에서 종사자 교육, 지역 격차 해소, 전문성 인정 체계 마련 등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된 만큼, 이제는 이를 실천으로 옮길 때”라고 강조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 1:1 지원 인력을 배치해 맞춤형 주·야간 돌봄 지원
- 도전적 행동에도 신속한 지원·개입 제공
- 강화된 돌봄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가도록 지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왜 필요했나?

- 도전적 행동(자해·타해 등)으로 기존 돌봄서비스로는 한계
- 부모의 24시간 돌봄, 격리 수준의 보호가 현실
- 맞춤형 돌봄을 위한 1:1 지원 체계 도입



“이제는 함께 살아가 수 있는 돌봄이 필요합니다”

복지광장



최 명 희

충주성폭력상담소장

나는 군인인 남편을 만나 군인가족으로 30년 가까이 살아오다 보니 세상 돌아가는 일에도 점점 둔해지고, '민간인'이라는 단어조차 어색하게 느껴질 즈음, 우연한 계기로 생명의전화를 알게 되었다.

당시, 아는 지인이 곧 시민 상담교실이 열린다며 교육을 받아보라고 권유해 주었는데 섣뜻 내키지 않았지만, 교육을 수료하면 상담원으로 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과연 내가 훌륭한 상담원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주저했지만, 어느 날 불현듯 용기가 생겼다. 아나, 어쩌면 생

각이 바뀐 것이다.

“나를 위해 상담 공부를 해보자”는 마음으로 50시간의 교육을 수료했고, 그렇게 나는 상담원이 되었다.

상담 봉사를 시작한 첫날, 나는 얼마나 떨렸던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쿵덕 쿵덕 뛴다.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며, ‘과연 어떤 전화가 걸려올까?’라는 상상을 해보기도 했다.

그리고 드디어 첫 벨소리가 울렸다. 나의 첫 내담자는 29살의 총각, 배우자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분이였다.

40일 작정 새벽기도를 하며 배우자를 찾고 있었지만, 스스로 그리는 이상향이 너무 높아 쉽사리 짚을 찾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말문이 막혔다.

상담 교육 시간에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강사의 말이 문득 떠올랐다. 그래서 나는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싶은데, 이상향의 배우자가 나타나지 않아 많이 초조하고 불안하셨겠어요” 그분의 마음을 공감하며 이어 말했다.

“믿음으로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시는 모습 자체가 정말 귀하고 대단하신 일이예요”

내 말을 들던 내담자는 이내 조용히 물었다.

“제가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까요?”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응답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전하며, 현실적인 조언도 함께 건넸다.

“직장도 찾아야 하고, 외모를 가꾸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결혼생활은 외모가 전부는 아니고 진심과 책임감, 믿음이 더 중요하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아직 그의 마음에 깊이 닿지는 않은 듯했다.

상담을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는 말을 전했고, 그 이후에도 그는 종종 전화를 걸어왔다.

이젠 내 목소리를 먼저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한다. 처음 상담했을 때보다 목소리에 자신감이 느껴졌고, 직장도 생겼다고 했다.

“자기 일에 충실한 모습이 참 멋져 보여요” 나는 지금의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었다.

내담자가 처음과는 달리 조금씩 바뀌어 가는 것을 보니 나 역시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그렇게 상담 일을 이어오던 나는, 어느새 ‘생명의전화’ 간사로 일하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고, 나는 더 전문적인 상담원이 되기 위해 50살이라는 나이에 사회복지사 공부를 시작했다. ‘이 나이

에 자격증을 따서 과연 얼마나 일할 수 있을까?’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다.

하지만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누군가를 필요로 할 때 주어진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공부에 매달려 마침내,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했다.

그 순간, 마치 무슨 벼슬이라도 단 것처럼 기뻐했다.

그 후, 생명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그렇게 5년의 시간이 흐른 뒤, 나는 성폭력상담소 소장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이제는 60살을 넘긴 나이에 소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건강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적·의료적·법률적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이 인권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다.

나아가 성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 연대 활동과 홍보·교육·연구 등을 통해 성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성차별과 성폭력이 없는, 인간 중심의 성문화를 정착시키는 것.

보다 성평등하고 건강하며, 따뜻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지금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고 믿는다.

상담실에서 피어난 희망의 꽃

사회복지사가 되기까지

려 그 친절함에 고함과 부모님 생각이 밀려와 첫날 밤을 평평 울며 지냈다.

그렇게 시작된 나의 정착생활은 식당 아르바이트를 비롯해 전자회사 생산직, 화장품 가게 매니저 등 다양한 일을 하며 한국 사회를 배워가는 시간이었다.

그러던 중 문득 컴퓨터를 배워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고, 하나하나 자격증을 따면서 나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도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다.

언제든 전화하면 따뜻하게 반겨주던 상담사 선생님들이 어느 날 야간대학교 진학을 추천해 주었고, 그 계기로 어렵게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했다.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밤에는 수업을 병행하며 힘들게 학교를 다녔다. 졸업 후 바로 좋은 직장을 얻지 못했지만, 전문직에 대한 열망을 품고 꾸준히 구직 활동을 이어간 끝에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었다.

처음 발을 디딘 곳은 요양원이었다. 탈북민이라는 정체성과 문화 차이, 주변 시선 때문에 말 한마디도 조심스러웠다.

긴장과 피로가 쌓여 그만두고 싶던 순간도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르신들을 섬기고 공경하는 마음과 인성이 업무 능력보다 더 중요함을 깨달았다. 그때 비로소 ‘진짜 사회복지사로 한 걸음 나아갔음을 느꼈다.

우리가 한 민족이라 하지만, 7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남과 북의 문화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컸고, 마치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처럼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하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처음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할 때는 특유의 억양과 문화 차이 때문에 동료 복지사나 요양보호사들의 시선이 낮설고 때로는 차별처럼 느껴질 때도 많았다.

그렇다고 그분들을 만날 수 없어 나는 그들의 억양을 배우려고 TV를 보며 열심히 따라 했고, 문화 차이로 생긴 문제들에 부딪힐 때마다 겸손한 자세로 배워나갔다.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티가 나도 자신 있는 어조와 책임감, 배우려는 마음으로 일하니, 서서히 동료들도 나를 인정하고 의지하며 함께 일하게 되었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고 보호자와 원활히 소통하는 일은 생각만큼 쉽지 않아 늘 고민이 많았다.

특히 탈북민인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의심 어린 시선이 더욱 신경 쓰였고,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농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체크하며 다음 일정을 준비하곤 했다.

북한의 노인 복지지는 일부 특권층만 누리며, 대부분 노인은 가족부양에 크게 의존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가족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집을 떠나는 ‘노제비(노인꽃제비, 어린꽃제비)’도 늘고 있어, 일반 평민의 노인 복지는 사실상 어려운 현실이다.

반면 한국은 소득 보장, 의료, 주거 등 다양한 노인 복지 정책을 펼치며, 노인 인구 증가에 맞춰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

이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로서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며 생활하고 있다.

노인복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어르신에 대한 공경과 섬김, 그리고 진심 어린 봉사 정신을 가져야만 비로소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다.

물론 업무가 밀려 스트레스와 피로가 쌓일 때도 많지만, 북한에 계신 부모님을 모시지 못한 죄책감이 마음 한편에 늘 자리 잡고 있기에, 어르신들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함께 밝게 웃어주시는 진심 어린 표정을 볼 때마다 남다른 뿌듯함과 행복감을 느낀다.

북한에도 한국처럼 노인복지 혜택이 조금이라도 더 많아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 늘 마음이 아파오기도 한다.

탈북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직업 중 하나가 사회복지사라고 한다. 더 많은 탈북민들이 ‘탈북민’이라는 이름 대신 전문직임을 갖춘 유능한 사회복지사로 성장하기 위해 꾸준히 역량을 키우며 준비해 나가길 바란다.

누가 알아주든 말든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자신의 미래를 꿈꾸다 보면, 언젠가는 그 꿈꾸던 미래의 자신을 만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복지칼럼

작은 생명에서 배운 보살핌



조 봉 희

행복도림 심리상담연구소 대표

아이가 식탁에서 검은색의 아주 작은 무언가를 발견한다. 무엇일까?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궁금함을 채우려 자세히 보고 또 보며 관찰한다. 얼마 후, “아! 달팽이다!”라고 소리치며 기뻐한다.

기쁨도 잠시, “달팽이가 말라죽은 것 같아!”라며 안타까워하며 작은 그릇에 물을 가져다 넣어주고 한동안 가만히 살핀다.

그러자 물을 넣어주고 기다린 보살핌에 응답하듯, 달팽이가 아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 반응에 “살아있어~ 살아있어~” 하는 소리에 반응하듯 온 가족이 몰려와 들여다본다.

달팽이의 움직임에 안도하며, 보살핌에 더욱 집중하여 상추, 오이 등 집에 있는 야채를 잘라 넣어주고, 물도 보충하며 지극정성을 다한다.

그 정성에 보답이라도 하듯, 이제는 더듬이도 나왔다.

아주 작아 잘 보이지도 않지만, 보고 또 보고 살피면서 작은 달팽이의 모습이 온전히 보이는 것 같다.

그리고 달팽이에게 적합한 조건을 검색해 조금이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려 간절한 마음으로 살핀다.

“이제는 달팽이가 상추도 조금 먹었어요,” “이동해서 다른 곳에서 발견됐어요,” 등 달팽이가 열린 회복해 방생할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이다.

그 모습을 보며, 우리의 현 사회는 어떠한가를 생각하게 된다. 아이가 달팽이를 살피듯, 우리도 서로를 관심과 사랑으로 살피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요즘 접하는 사회 뉴스는 사고의 연속과 상상할 수 없는 아동학대로 인해 아동이 죽음에 이르고, 학교폭력, 일면식도 없는 가해자의 칼부림 등 안타깝고 마음 아픈 소식이 가득하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요즘 사회의 일면을 접할 때면 걱정과 염려로 불편함을 토로하는 분들도 종종 만나게 된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사회 속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 가야 할 길을 잃고 어지럽게 허둥대는 모습이 연상되곤 한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돌봄’이 아닐까 생각한다. 먼저 자기 돌봄으로 우리는 각자 자신의 내면에서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가?

우리는 자신이 사는 사회에서 지적과 공격을 받는다면 아마 많이 힘들 것이다. 그런데 자신의 내면에도 ‘사회’가 있다고 본다.

그 자기 내면 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자기 스스로 자신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있을 수 있는데, 자신에 대해 허용과 수용은 있는지, 또 지지와 격려가 가능한지, 아니면 지적과 탓으로 몰아세우고, 화가 나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자신에 대한 돌봄과 세움이 먼저 필요하다고 본다.

그 후에야 상대의 부족한 부분을 살펴 수용할 수 있고, 지지와 격려가 가능해지며, 보살핌으로 서로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우리가 원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요즘 사회에서 스스로의 모습을 외면하고, 지적하며 소홀히 대하는 건 아닌지 그렇다면 그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는 마음 또한 같은 마음으로 만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한 상황이 순환되어 상대를 대하는 모습이 자신에게 되돌아올 때 우리는 아프고 외롭고 화가 난다. 그 화가 자신에게 향한다면 우울이나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고, 상대에게 향한다면 상대를 힘들게 하며, 원치 않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모습이 악순환되어 패턴화 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할수록 염려되고 걱정스럽다.

그 누구를 탓하기보다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내면소통은 어떠한지, 자기수용과 마음챙김은 충분한지, 자신을 잘 돌보는 사람이라면 안정된 마음과 편안함으로 만나는 상대 또한 편안히 수용하며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소통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게 자신부터 선순환하는 생활이 된다면 우리의 가정과 직장, 더 나아가 지역사회도 안정되고 편안해질 것이다.

지금이 바로,년부터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특히 현 사회는 너와 나, 우리를 보듬고 편안히 방향을 안내하는 ‘서로의 보살핌’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인 듯하다.

“나는 나면서 너가 되고, 너는 나면서 내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되고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고 사랑이 된다”는 글귀가 생각난다.

즉,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너와 내가 서로를 보듬고 살피며 살아간다면 배려와 안정, 편안함 속에서 안녕감과 행복한 가정, 직장 더 나아가 지역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길 마음 모아 소망해 본다.

현장의 목소리



김 춘 애

충주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

나는 북한사람이었다.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서 10년을 지냈고, 지금은 한국 정착 17년 차에 접어든 탈북민이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현재는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다.

중국 연변에서 지내던 시절, 탈북민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되던 시기였기에, 꿈에서도 체포되는 악몽을 꾸다 별별 일어난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곤 했었다.

한국에 정착해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을 마치고 배정된 집

에 처음 들어섰던 날이 아직도 생생하다. 낯선 환경에 마음이 긴장돼 있던 찰나, 정착도우미분이 찾아와 따뜻한 말로 안부를 묻고 이것저것 챙겨주시는데, 오히

똑똑똑! 법률홈닥터입니다.

취약계층 법률 상담 서비스 법률홈닥터



법률홈닥터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제도’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내용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 지원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

채권·채무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파산
이혼·친권·양육권 생활법률 전반



신청방법

시 간 월~금 10:00~17:00(공휴일 제외)
전 화 043-238-0843
사무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2호



이 달의 법률상식



신인경 변호사
(법무부 인권구조과)

Q. 저는 베트남 국적자로,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고자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현재는 관광비자로 체류중이며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혼인신고를 마친 후에는 어떤 절차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게 되면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기존의 국내 체류자격을 국민의 배우자에게 주어

국제결혼과 결혼이민자의 체류자격

지는 체류자격인 결혼이민(F-6)자격으로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바로 결혼이민(F-6)자격 사증으로 입국하게 되므로 별도로 변경신청은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의 체류자격을 결혼이민(F-6)자격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F-6)자격은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고, 결혼이민(F-6)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면 영주(F-5)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영주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에 가장 가까운 체류자격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의 경우, 먼저 결혼이민(F-

6) 비자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한국 거주 후 영주(F-5)자격으로 변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동정

■ 인천군자원봉사센터
▷ 센터장 이미숙 / 7월 1일자

인사동정 이용 안내

●사회복지시설·기관 · 단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사이동(기관장 변경 법인 내 이동 등에 대해 게재를 원하시는 사설은 문의 바랍니다.)
※043-234-0840 김세나 사회복지사

복지정보 제공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제공 서비스' 신청 안내]

- 신청대상: 도내 사회복지시설 · 기관 종사자
- 발송내용: 도내 사회복지 행사 안내 및 유관 기관 공모사업 제공
- 발송횟수: 주 3회
- 신청기간: 상시접수
- 신청방법: '충북복지넷' 홈페이지(www.043w.or.kr) 팝업창 참고

[충북사회복지협의회, 2025년도 유니버설디자인센터 교육 신청 안내]

- 진행일시: ~12월 31일 (상시 신청가능)
- 진행장소: 유니버설디자인체험센터(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1층)
- 진행대상: 초 · 중 ·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등 도내 사회복지시설(기관) 근무자 및 이용자
- ※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하여 신청 인원은 회차당 20명 이내로 가능함
- 주요내용: 유니버설디자인(UD) 이론 교육, 유디체험관 및 주택체험관 견학
- 신청방법: 전화 접수(T. 043)234-0840~2) ※ 담당자와 일정 조율 후 신청서 제출
- 참고: www.043w.or.kr

[충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안내]

- 사업내용: 도전행동으로 인해 기존 서비스 이용이 힘든 발달장애인에게 욕구 및 지원필요도에 따라 당사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및 원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주요서비스 및 제공시간
- 24시간 개별 1:1 지원(주중 낮활동과 야간돌봄을 포함한 24시간 돌봄서비스)
- 주간 개별 1:1 지원(이용자 특성에 맞는 1:1 개인별 맞춤형 낮활동 서비스)
- 주간 그룹 1:1 지원(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를 사용하는 1:1 그룹형 낮활동 서비스)
- 서비스내용: 도전행동지원, 일상생활훈련, 자립생활, 취미활동 등
-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 충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043-716-2168~9)

[KBS강태원복지재단, 2025년 하반기 장바구니 집시들 '자립준비청년 식재료 꾸러미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 지원기간: 9월~12월(총 4개월/6회 지원)
- 지원대상: 전국 만 30세 이하 자립준비청년
- 지원내용: 1인당 총 60만원 상당의 식재료 꾸러미 지원
- 자격요건: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대상으로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신청기간: ~2025. 8. 7.(목) 16시까지

- 신청방법: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
- 참고: www.kbsktw.com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시설거주 장애 청소년·청년의 자립을 위한 통합지원사업]

- 주요대상: 시설에 거주 중이거나 퇴소 예정인 장애 청소년 · 청년(~39세 이하)
- 신청자격: 시설거주 장애 청소년 · 청년을 위한 서비스를 운영하는 법인 · 기관 · 단체 및 시설
- 사업내용: 자립생활 기술 훈련, 전환기 교육, 주거 및 자립지원 등
- 신청기간: ~2025. 8. 22.(금) 18시까지
- 사업기간: 2025. 11. ~ 2028. 10 (3년)
- 사업예산: 연간 20억원 (기관당 연간 최대 2억원) * 지원가능 항목: 전담인력 인건비, 사업비, 관리운영비
- 신청방법: 온라인배분신청 사이트(proposal.chest.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바보의나눔, 2025년 여성가장 긴급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긴급한 사회적 위험에 처해있는 실질적 여성가장(신청기관에서 1개월 이상 사례관리, 가정 방문중이거나 향후 신청기관의 사례관리 과정에 동의한 개인)
- 지원예산: 1인당 최대 400만원
- 지원분야: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내용
- 신청기간: 신청월 5일 18시 이후 ~ 익월 5일 18시(12월 5일까지 매월 접수)
- 사업기간: 신청월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가능한 단체(사회복지기관,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제출 서류 구비 및 온라인 접수
- 참고: babo.or.kr

[푸르메재단, 2025 하반기금융그룹 재할 보조기구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지원대상: 만 24세 이하장애 어린이 및 청소년
- 지원내용: 개인별 맞춤형 보조기구(1인 최대 250만원)
- 지원기간: 2025. 10. ~ 2026. 3. (최대 6개월, 선정 후 보조기구 납품 기간)
- 신청기간: ~2025 8. 29.(금) 24시까지
- 신청방법: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복지관, 병원, 주민센터 등) 담당자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참고: gwon.net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26년 전국단위 신청사업 공고]

- 사업내용: 복지, 보건 · 의료, 교육, (기후)환경, 인권 등 지역사회 변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획된 서비스 및 활동, 성과목표 달성을 통해 사업 참여자의 의미 있는 변화를 꾀

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변화의 기초를 다지는 프로그램(성과형) 사업

- 신청대상: 전국단위 사업수행이 가능한 비영리 기관 · 단체 · 시설
- 신청기간: ~2025. 8. 29.(금) 18:00 (약 2개월)
- 신청방법: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proposal.chest.or.kr)를 통한 신청
- 사업기간: 2026. 1. 1. ~12. 31.
- 지원금액: 기관별 1년간 최소 1억원 이상, 최대 2억원 이하

[우리금융미래재단, 위비프렌즈와 함께하는 위비랑 돌잔치]

- 사업대상: 전국 아동양육시설 내 만 1세 생일을 맞이하는 아동(2024년 1~12월생)
- 지원인원: 총 50명
- 사업기간: 2025년 4~12월 (총 9개월)
- 지원내용: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가입(지원금 100만원), 찾아가는 돌잔치 지원, 간식비 지급, 선물키트 제공
- 신청기간: 사업 기간 내 상시 모집
- 신청방법: 구급품으로 신청서 제출
- 참고: www.woorifuturefoundation.or.kr

[함께하는 사랑밭, 위기가정 희망지원사업]

- 지원대상: 전국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
- 지원내용: 청소년 결연 지원, 생계 · 의료 · 교육 · 주거 · 심리정서 지원, 긴급한 위기상황 극복 지원, 온라인 모금캠페인 지원
- 신청기관: 아래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사회복지기관(대상자 개인신청 불가)
- * 지원금 전용 기관계좌 개설 및 집행 가능 기관
- * 사례관리 실무 기관
- 지원기간: 연중 상시(당해년도 예산소진 시 마감)
- 신청방법: 홈페이지(www.withgo.or.kr) 내 '위기가정 희망지원사업' 페이지 접속 및 신청서 작성/이메일 제출
- 문의: 지역별 문의처 상이

[김대일문화재단, 2025 나들이 지원사업 [놀이; 하다] 참여관 모집 안내]

- 신청요건: 아동양육/보호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 보육원, 그룹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청소년쉼터 등 지원대상자 거주 및 생활시설 - 사업비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필수
- 지원대상: 해당 시설 이용자 및 관계자
- 신청기관에서 생활 중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
- 신청기관에서 근무 중인 관계자 및 인솔자
- 신청기간: 2025년 3월~10월 중 상시 모집
- 지원내용: 나들이 프로그램 진행 비용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참고: www.kdcf.or.kr

자원 봉사자 모집

▶충북사회복지신문 우편발송 작업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8.1 ~ 8.31
전화번호: 043-234-0840

▶ 행정업무 지원

관리센터: 음성군노인복지관
활동기간: 8.1 ~ 8.31
전화번호: 043-883-2470

▶ 사무보조 및 환경정리

관리센터: 단양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활동기간: 8.1 ~ 8.31
전화번호: 043-422-7788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

관리센터: 산남종합사회복지관
활동기간: 8.1 ~ 8.31
전화번호: 043-288-1428

▶ 어르신 말벗, 이동도움 등

관리센터: 플랫폼 나눔 청주점
활동기간: 8.1 ~ 8.31
전화번호: 043-903-2000

▶ 일반반 서비스 전달

관리센터: 영동군장애인복지관
활동기간: 8.1 ~ 8.31
전화번호: 043-743-0095

▶ 동년배 상담사 업무

관리센터: 청주상당노인복지관
활동기간: 8.1 ~ 8.31
전화번호: 043-288-3060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 연중
전화번호 : 043-234-0840~2

*자료출처 : www.vms.or.kr

지역사회봉사단

해오름봉사단, 이·미용 봉사활동 진행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유응모) 소속 '해오름봉사단(단장 구본욱, 이하 봉사단)'은 11일 성이네나눔센터를 방문해 이·미용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봉사단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미용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요양원, 시설, 쉼터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입소자 및 이용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미용 봉사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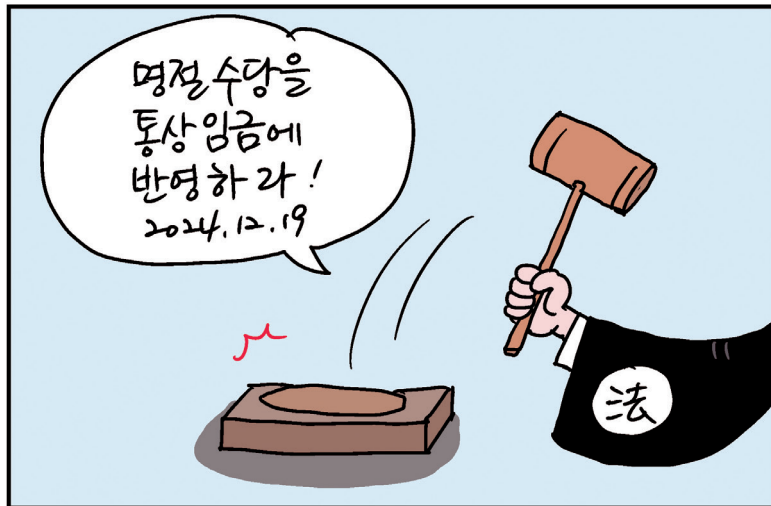
'해오름봉사단'은 2010년 충북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봉사단으로 위촉되었으며, 현재 미용실을 운영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미용실을 직접 찾아오는 취약계층 대상으로도 재능나눔 활동을 펼치며 기쁜 마음으로 봉사에 임하고 있다.

지역사회봉사단은 VMS에 가입되어 있는 2인 이상 자원봉사자로 기술 및 재능을 가지고 있는 단체인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활동혜택으로는 다양한 사회복지 분야의 맞춤형 봉사활동 연계, 봉사활동 활동재료 지원, VMS 봉사실적 관리, 우수봉사단 표창 등을 지원하고 있다.

북/지/만/평

폭탄 돌리기

이창신 www.bokmani.com



막을 수 있는 사고를 방치하는 것이 인재(人災)입니다.

반복되는 폭우 피해로 실의에 빠진 우리 이웃들을 도와주세요!
2025 호우피해 특별모금 안내

모금기간 : 2025.07.21. ~ 2025.08.17.까지

2025년 7월 16일부터 발생한 폭우로 인해 일상을 잃어버린 우리 이웃들이 다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내어주세요.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기간 2025년 07월 21일(월) ~ 2025년 08월 17일(일)까지

지원계획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지원현물(의연금품)은 지역구호센터(지자체)를 통해 지원

문의 043-238-9100

농협은행 예금주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청북도지회
313-01-144258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희망시 문의주세요 기부금영수증 발급 도와드립니다.

